

## APEC과 사회안전망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세계화(Globalization)의 조류는 이미 피할수 없는 흐름이며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 특히 사회분야가 이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안전망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주요 아시아국간의 조직적인 논의와 대책 개발은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각료회의 승인을 거쳐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Social Safety Net Capacity Building Network)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APEC은 지역경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협력이어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계화로 명명되는 이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일치된 개념이나 이론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세계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동안 주로

경제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특히 무역과 자본이동을 위한 국가경제의 개방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 등 경제적 문제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과정은 경제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요구됩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자연 도태되므로 이러한 기업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재취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직과 재취업이 경직적이지 않게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세계화 과정은 경쟁력이 강한 기업의 근로자나 해고되지 않고 직장에 계속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수반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임금격차는 심화되고 좋은 직장과

저임금의 비숙련 일자리간의 양극화가 계속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여건은 사회안전망과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갖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적정한 임금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화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과 저임금노동으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여건을 저하시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증대시킵니다. 물론 직장에서 근로여건 저하에 대한 반대운동 등이 국가별로 차이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APEC 역내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화와 사회안전망의 개선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는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화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국 빈곤과 고용불안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

게 됩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는 투자 및 사업유치를 활성화해야 하므로 세금을 낮추고 재정적 균형을 맞추며, 공공지출을 줄이게 되어 복지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이든지 간에 항상 찬반으로 나뉘어 의견

대립이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생산적 복지 기조 하에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 왔으나 이에 대해 복지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것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는 물론 각 해당국의 정책이 우선되겠지만, 세계화의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 각국이 홀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가 없을 경우 최근 세계 이곳 저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NGO들의 세계화 반대운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구축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의 주도하에 21개 회원경제들이 공조하여 역내 사회안전망에 관한 능력을 배양

하며 동시에 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들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APEC 역내 회원경제들이 공동으로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관련정책에 대한 대화의 창구역할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에 대해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APEC 회원경제와의 국제교류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므로 역내에서의 세계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APEC 역내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화와 사회안전망의 개선에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